

데이브 매튜슨 박사,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 4 과목 , 일반 서신 과 요한계시록 에서 재림이 지연됨

© 2024 데이브 매튜슨 (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Dr. David Ma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4과, 일반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이 지연됨.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일반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신약성경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션에서 베드로후서 3장에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다른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보고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그리스도의 곧 재림, 또는 저자, 즉 예수, 1세기 청취자와 독자의 생애 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의 문제 대신 지연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연 문제는 현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1세기 말, 1세기에 이미 지연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지 않으셨는지에 관해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관점에서 지체를 보지 않으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관점과 대략 60년, 70년, 80년 정도의 수명의 관점에서 지연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지연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미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신약성서의 지연에 대한 가장 온전한 대응이자 신학적 근거일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부터 요한3서까지 일반서신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일반서신의 세 가지 본문인 야고보서 5:8, 베드로전서 4:7, 그리고 요한일서 2:17, 18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은 히브리서 10:25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텍스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오심(그리스어로는 파루시아(parousia)), 즉 주의 오심이 가까웠거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억압적이고 부유한 지주들의 손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더 넓은 맥락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됩니다. 그리고 5:1부터 11까지 읽으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통받는 일꾼들,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먼저 주님이 오실 때 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판사들의 언어, 즉 시간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미지인 공간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것이 공간적으로 가깝고 언제든지 침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5장과 8절에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여 부유한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예정입니까? 제임스가 틀렸나요? 그는 이런 일이 자신의 생애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틀렸습니까? 그가 착각한 걸까요? 비록 몇 사람이 제안했지만, 나는

야고보가 실제로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확실히 그것은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야고보가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루시아 언어로 문 앞에 서서 심판관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야고보의 언어는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독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야고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구별되는 우리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가져오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이 문맥에서는 저 악한 압제자들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말해야 할 전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마지막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타임스.

마지막은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을 시작하셨고, 따라서 그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나서 그 마지막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처럼 야고보와 그의 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으로 오실 때 그 종말이 마무리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미 오셔서 문 앞에 서 계시며, 역사 속으로 침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므로 그의 독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심판하러 다시 오실 수 있으므로 독자들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야고보서 5장 1장을 요약하면 야고보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사이의 동일한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곧이다.

둘째, 야고보는 그것을 경건한 삶의 동기로 사용했습니다. 종말을 예측하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독자들이 책임감 있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윤리적 동기로 그리스도의 곧 재림, 즉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압제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정의를 이루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 다음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때가 이르렀다' 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언뜻 보기에 그것은 종말을 예측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예측하고 있었다가 착각한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와 독자의 생애 내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야고보서 5장 8절이나 바울의 서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지막 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압축된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간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자신의 생애 동안이나 독자들의 생애 동안 일어나야 할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둘째, 야고보서 5장, 바울 및 기타 신약의 저자들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이러한 관점, 즉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윤리적 긴박성을 심어 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들의 생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독자들은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깨어 깨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내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 다면, 또는 그분이 10년, 20년, 100년, 1,000년, 2,000년을 지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에 따라 그들의 삶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고보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이미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독자들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령한 삶을 살기 위해 긴급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지 전체에 걸쳐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비록 겉으로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자신의 생애 동안 끝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단순히 다른 신약성경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뿐, 그가 언제 오실 것인지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 다음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 17절과 18절을 모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마지막 때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구절을 요약하자면, 요한은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와야 할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이미 이르렀음을 나타내려고 이미 왔느니라. 요한은 만물의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그와 유사한 것,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마지막 시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간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마지막 시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John은 그들이 이미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아마도 거짓 가르침의 형태를 취했다는 사실,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미래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 즉 마지막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 또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독자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세상과 그 정욕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세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이 질서의

해체, 이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적들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때인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악과 속임수와 죄로 가득 찬 이 현 세상이 이제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날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끝이 마지막 끝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예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의 죽음, 부활로 인해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일의 일부가 아닌 것, 즉 역사의 결론을 가져오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처럼 요한도 윤리적 긴급성을 위해 이러한 관점을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주변 구절을 읽어보면, 그는 독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속임수를 피하고, 거짓 교사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요한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존은 종말을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징조를 읽고 끝이 얼마나 가까웠으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예측하는 현대의 예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요한은 그리스도의 곧 재림과 그들이 이미 마지막 때, 즉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틀림없이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피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서신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설명하는 것이 이 세 본문의 이런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의 어떤 내용도 실패한 예측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한이나 야고보나 히브리서의 저자나 베드로가 결코 오지 않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렸고, 틀렸고, 그들의 관점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출범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시대와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즉,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현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방식에 긴급함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성경의 저자와 독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았고,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마지막 왕국이 그의 생애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는 틀렸다.

우리는 여러 본문에서 예수께서 아마도 마지막 왕국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왕국의 시작을 언급하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말 왕국에서 곧 재림하실 것을 언급할 때에도 그것은 종말이 이미 열렸으므로 예수의 사역과 함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 왕국은 이미 현재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마무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오실지 예측하지 않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글에서도 같은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에는 바울이 종말을 예언했고 따라서 틀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그도 시간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종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시간이 압축되고 단축되어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전체 계획, 데살로니가후서와 같은 몇 가지 본문보다 신약이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신약성서는 지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반서신에서 똑같은 관점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비추어 그들의 삶을 적절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과 종말에 관한 책으로 흔히 알려진 책입니다. 나는 그것이 확실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모든 피조물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마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파루시아의 지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탐구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갖고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책들과는 좀 달랐어요.

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유형의 문학에 속합니다. 계시록은 종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종말, 문명의 멸망, 그와 유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은 일종의 문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 사람의 머리와 전갈의 꼬리를 가진 메뚜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고, 곤충 같고, 좀 이상해요. 일곱 머리의 용 같은 것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무슨 일이야? 글썄요, 요한은 그 시대와 미래에 있을 실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던지거나 이 환상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과 첫 번째 독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로마 제국, 황제,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의 숭배를 장려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제.

존은 독자들이 그런 일을 피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로마의 진정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사실 여러분을 해치려는 일곱 머리를 가진 끔찍한 짐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상에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에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로마제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통해 로마를 지지하고 운명을 바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종말을 예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존이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면서 21세기를 본 다음 다시 돌아가 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구약성서 학자들은 예언을 예언하는 것과 앞으로 말하는 것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중에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알리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에는 훨씬 더 미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부르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만큼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그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계시록은 특히 책의 마지막 몇 장에 이르렀을 때 그렇습니다. 요한은 역사의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목적은 단지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그때에도 존은 여전히 예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분은 미래를 언급하실 때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또한 John과 그의 독자들이 이 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알아낼 수 있는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과 그의 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은 원래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에 대해 헛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입니다. 혼란스러운 책이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독자가 이해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1장과 3절에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책 전체를 읽고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라고 요청합니다.

내 대답은, 요한이 어떻게 그의 독자들이 지키고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존은 독자들이 그 책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책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만적이며 적어도 John이 하려고 했던 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2장과 10절에서 요한은 때가 가까웠으니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을 봉인한다는 것은 나중에 위해 그 내용을 숨기겠다는 뜻이었지만 John은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봉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세기에도 이해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즉 로마 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글썄, 우리는 흥미롭게도 책의 맨 처음과 책의 맨 끝에서 제가 약간의 시간을 들여 살펴보고 싶은 여러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내 생각엔 1장의 책 서문에서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많은 신호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21세기와 그 시대에는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읽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아마도 책 전체, 즉 한두 부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언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책 끝 부분에 대한 언급, 특히 19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의 내용이 가까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곧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책의 맨 끝 부분인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새 창조에 대한 환상 이후에 우리는 책을 읽고 환상 이후에 책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종류의 최종 지침을 발견합니다. 존은 그랬다. 22장 7절에서는 책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곧 오리라.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과 같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곧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그는 반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인 2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요한은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일을 증언하시는 이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책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세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의 내용이 가깝고, 그 내용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진술, 곧 일어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한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의 생애 동안, 즉 1세기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John은 착각한 것입니다. 요한 자신과 아마도 그의 독자들은 다음 세기에 현장에서 사라졌고 요한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술을 계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학의 종류의 맥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임박함 과 가까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관한 이러한 진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그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순성 본문이나 본문에 유사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 70년.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20세기, 21세기 또는 그 이후의 1세기 독자들의 지평선 너머 먼 지평선에서 먼 미래의 길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의 생애 동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것을 서기 70년의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은 네로 통치 초기인 60년대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 날짜가 더 이른 것으로 가정합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고, 나는 계시가 아마도 그보다 나중에,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생애 동안, 즉 1세기 말, 즉 서기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학자들 사이의 더 대중적인 합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 따라서 계시록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렇다면 요한이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한 것은 주후 8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19장부터 22장까지와 요한계시록의 다른 두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시록과 가까움과 곧을 언급하는 이 모든 본문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는 견해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

그 말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1세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들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특히 19장과 22장에서 읽는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곧인가? 어떤 사람들은 곧이라는 단어를 언어로 번역하면 빨리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곧 번역되거나 빨리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곧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요한이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지 않고 빨리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순순함의 언어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한 이러한 사건들이 곧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올바른 번역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옵션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실제로 약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생각에 요한은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에게서 본 것과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는 바울, 요한1서의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그들 모두는 시간을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신들이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종말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마지막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이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때가 가까웠고, 이런 일이 곧 일어나며,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완성이 역사 속으로 침입하여 완성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정말로 곧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22장에서 요한과 예수의 진술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끝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틀립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보아온 것과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끝은 이미 시작 되었으므로 요한과 독자의 마음 속에서도 그 끝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관점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관점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점은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처럼 요한도 독자들에게 윤리적 긴급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러한 관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John은 종말 시간이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윤리적 긴급성을 심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사용합니다. 로마 제국의 상황에 살고 있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이려는 유혹을 받는 독자들에게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저항하고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고기, 결과가 어떻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이미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곧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 동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협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순종하여 반응해야 할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들이 실제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예측하려는 어떤 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혀 존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전체 환상의 틀을 이루는 적어도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의 이 진술은 그 환상에 나오는 사건들이 요한이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장 오셨다가 그 사람이 착각하고 틀렸어요. 대신,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긴박감을 심어주기 위해 그러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들의 생애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다른 관점과 이 관점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생애 중에 끝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요한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종말로부터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만큼 종말이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는 관점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 이 주제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보고 싶은 두 개의 다른 구절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역사적 교회에 대한 일곱 편지, 즉 일곱 메시지 중 더 정확하게는 일곱 개의 메시지 중 두 장과 세 장에서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곧 재림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진술을 발견합니다. 이 진술은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일곱 교회의 생애 내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은 실수를 한 걸까요?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가 15절을 읽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에 있는 이 역사적인 교회에 곧 그들에게 임할 그리스도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3장 11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3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 아무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당신이 가진 것을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 부분인 2장 16절은
요한이 결코 오지 않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썄, 요한은
그리스도가 더 빨리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실제로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두 구절을 모두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구절 모두 그리스도께서
역사상 심판을 위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심판하러 오셨고, 그들의 순종의 부족과
불신실함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2장과 16절에 그가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니골라당과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들이 누구이든 아마도
교회를 로마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이렇게 말하는 집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함과 동시에 로마 제국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2장 16절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이
로마에 맞서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타협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3장 11절을 1세기로 제한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22장의 끝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언어를 반영합니다. 22 장 7절, 12절,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3장 11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곧 갈 것이다. 아무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당신이 가진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마지막 보상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사실 바로 다음 구절인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을 세우리니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 새 예루살렘 환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아마도 11절은 종말, 즉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오지 않을 종말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그는 틀렸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곧 또는 가까움 에 대한 다른 언급을 이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 번 이는 요한과 그의 독자들이 이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관점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존이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애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에나 곧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1세기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든지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재림을 언급하든 관계없이 적어도 3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윤리적 권고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은 독자들이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이 교회들이 로마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어린 양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은 2장과 25절입니다. 그 구절은 언어가 약간 다르지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시 말하지만, 가르침은 아마도 로마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두아디라에서 이에 굴복하지 않는 몇 사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세기에 두아디라와 불충실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가 이것을 실패한 예측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곧 재림을 약속한 다른 본문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끝내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으며, 충실한 그의 백성에게 상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 본문과 요한계시록의 결론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제사장 나라입니다. 끝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으며 역사를 완성하고 아직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종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 로마와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John은 끝을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현대의 일부 예언 설교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빨리 오실지 예언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들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그 악한 제도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또는 가까움 에 관해 다른 신약성서 본문과 동일한 관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다음이자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계시록에서 이 주제와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주제나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 이나 가까움과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사건을 나타내는 여러 본문을 살펴본다면 , 임박함에 대한 강조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연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함과 지연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후서,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은 다른 신약성경 본문에서 지연이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강조할 것입니다.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John이 끝을 예측하고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살펴본 일부 신약성경 본문에서 재림 의 지연이 갖는 신학적, 목회적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